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8.29)

1. 불화수소(에칭가스) 수출허가 관련

□ [일본 동향]

- 서울신문, 파이낸셜 뉴스 등 국내 언론들은 29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을 허가했다고 보도함.¹⁾
- o 앞서 8월 8일과 19일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한 바 있음.

2. 수출규제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 관련

□ [일본 동향]

- 일본 재무성의 ‘무역통계’에 의하면, 일본의 불화수소 대한국 수출량은 479톤(7월 기준)으로, 전월(6월)대비 83.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²⁾
- o 금액 기준으로는 4억엔으로, 전월대비 32.6% 감소함.
- 단, 재무성 관계자는 “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맞지만, 그 이유까지는 통계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”고 발언하였음.

□ [일본 언론 평가]

- 일본의 일부 언론은 2019년 상반기 일본의 대한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약 11% 감소하였으며, 2019년 1~7월 한국인 방일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약 4% 감소하는 등 양국 간 관계 악화가 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(日本經濟新聞).³⁾

1) 「[속보] 일본, ‘수출 규제’ 후 불화수소 첫 수출 허가」 『서울신문』 (2019. 8. 29) 및 「일본, 규제이후 ‘불화수소’ 첫 수출 허가」 『파이낸셜 뉴스』 (2019. 8. 29).

2) 「韓国向けフッ化水素 輸出力80%余り減少 7月貿易統計」 『NHK NEWS WEBS』 (2019. 8. 29). 및 「フッ化水素、韓国向け輸出、7月8割減。」 『日本經濟新聞』 (2019. 8. 29).

3) 「対話欠く日韓、袋小路、優遇除外、韓国はWTO提訴準備、輸出入や観光に影。」 『日本經濟新聞』 (2019. 8. 29).

3. 한국의 WTO 제소 관련

□ [일본 언론 평가]

-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경우, 심리가 한국 측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주도면밀한 외교전략이 요구된다고 논평함.⁴⁾
- o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자국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같은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, 언뜻 보기엔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해도 정합성이 결여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음.
- o 다만, 산케이 신문은 WTO 전문가인 요코하마대 교수의 “WTO는 한국의 제소를 받으면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이며, 한국의 대항조치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”는 발언도 보도하였음.
- o 또한 산케이 신문은 WTO 분쟁해결 절차의 형식상, 한국이 제소한 후에 일본이 같은 취지로 제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음.
- o 그에 더해 현재 심리중인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·알루미늄 추가관세 조치는 안보상의 이유로 (정당한 것으로) 보기에 약하다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, 미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은 일본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논평함.

4) 「WTO提訴 日本、周到的な戦略必要 安保理由でも予断許さず」『産経新聞』(2019. 8. 29).